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나눔축산운동



남성우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농협축산경제 대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난 2월 20일 사단법인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범축산업계가 모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4천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모금한 8억원을 재원으로 지역사회 양로원, 고아원, 장애우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후원활동뿐 아니라,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협력 및 하천살리기 정화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눔축산운동은 사회에 만연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축산관련업계가 펼치는 사회적 나눔 운동으로 그동안 축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역

할이나 사회적, 환경적 책임감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우리 축산업은 축산인들의 열정과 소비자의 사랑 덕분에 눈부신 양적 성장을 거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축산업 생산액은 17.5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고 농업생산액의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무려 6개나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사료, 육가공 등 전후방 연관 산업 규모 58조원, 종사인원 56만5천명이나 될 정도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모 기관의 조사결과 축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43%나 되는 반면, 축산업에 대한 호감도는 18%로 낮게 나타났듯이 이웃 주민에게 축산업하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축산인 스스로가 축산분뇨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오리농가를 비롯한 축산인들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고아원·양로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축산물 전달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활동을 농협·관련단체 및 업체·소비자단체·학계를 포함한 범 축산업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사)나눔축산운동본부이다.

한편 오리업계는 현재 임의자조금을 올 하반기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어 자조금 사업의 확대로 적극적인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을 함으로써 오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가축분뇨 및 무허가 축사 등으로 오리농가가 지역사회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리농가 스스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를 생산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산인 스스로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이웃도 돌보고, 냄새가 덜 나는 깨끗한 농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신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의 식탁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생활밀착형 나눔운동전개”를 2013년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5개 실천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전국단위 생활밀착형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운동의 추진동력을 갖기 위해 「범 축산인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등으로 올해 후원회원 1만5천명, 모금액 1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이웃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이 넘치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축산물을 애용해 주시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건강한 축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축산과 경종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축산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오리업계가 나눔 축산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 나눔축산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축산업계의 아름다운 문화로 뿌리내릴 길 기대해 본다.

